

인터팩2011, 내년 5월에 만나요

세계 최대 포장의 흐름 한눈에



독일 뒤셀도르프 전시회의 한국대표부인 라인메쎄(주)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조선포탈 2층 라일락&튤립룸에서 인터팩2011(interpack2011) 설명회를 개최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포장전시회 인터팩2011 담당이사인 야브로놉스키(Mr. Jablonowski)가 새로워진 인터팩 2011에 대해 직접 소개했다.

포장은 제품의 생산과 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하다. 포장은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고 수송 및 저장 용기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수송, 효율적인 상품 관리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포장은 구매자의 의견 형성과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요한 포장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세계적인 전시회인 인터팩2011이 내년 5월에 열린다.

오는 2011년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 인터팩2011의 총 전시면적은 전체 19개 관에 약 265,000㎡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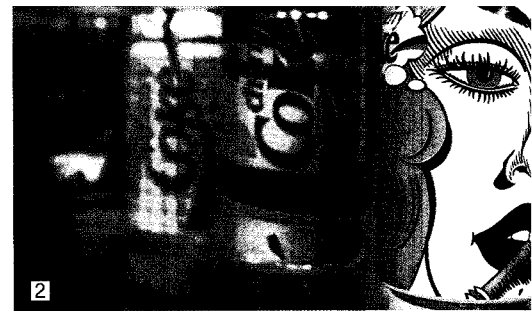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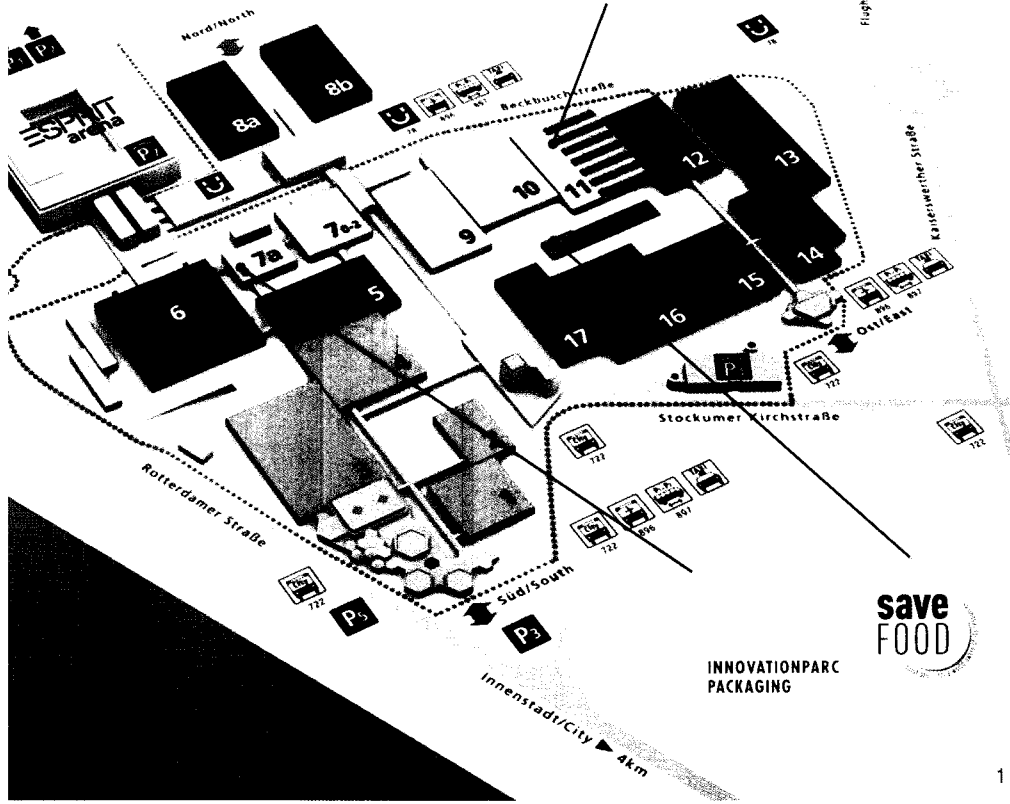
이르는 방대한 규모다. 이 공간에서 식음료, 과자류 및 빵류,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이외의 소비재, 산업재 및 관련 서비스 등에 관련된 각종 프로세스와 포장 솔루션이 선보인다. 야브로놉스키(Mr. Jablonowski)씨는 “인터팩2011에서 혁신적이고 자원보존적인 포장재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계들이 중점적으로 소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팩2011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웰빙), 에스테틱(디자인), 의미(지속성), 아이덴티티(소속), 단순성(축소) 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지속성, 안전성, 편의성 등을 갖춘 제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관 7, 8홀_ mall의 개념 도입

의약품 산업의 미래상점을 보여줄 예정이다. 인쇄를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 제품이 가게에 진열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준다.

METAL PACKAGING PLAZA



1. 파랑색부분 :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소비재(식품제외), 공산품의 포장 공정 및 포장기계
- 노랑색부분 : 포장재료 및 수단, 포장 제품
- 빨강색부분 : 제과 제빵 공정 및 기계류
2. 인터팩2008 모습
3. 10월 14일 열린 인터팩2011 설명회 모습

지속성

지속성은 현재 세계 전반에 걸친 핫이슈이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인터팩에서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기계, 시스템, 공정과 함께 혁신적이고 자원보존적인 포장재가 소개된다. 지속성을 실현하기 위해 포장업체들은 자원 및 에너지 절약에 최적화된 부품을 사용하고, 더욱 가벼워진 포장재로 운송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안전성

식품포장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상하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품의 완벽한 추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최고 수준의 위생적 디자인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제품보호를 위한 완전하고 지속적인 라벨링, 전체적인 가치 사슬에 걸친 제품추적 솔루션 등으로 제품의 흐름 전과정을 추적가능하도록 한다.

편의성

최근 노인인구, 1인가구의 증가는 포장부문의 변화를 몰고 왔다. 노인은 식품구입에 사용하는 돈이 많은데, 눈이 어두운 노인을 위해 포장디자인에 색의 대비를 선명하게 하거나 글씨를 읽기 쉽게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소포장의 발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24/7 문화에 맞춘 포장의 늘고 있다. 24/7은 하루 24시간 1주일(7일)동안이라는 뜻으로 연중무휴를 의미한다. 최근의 트렌드는 언제 어디서나 바로먹고, 바로 가는 편의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포장 단위 및 단위 포장량이 효율화와 재밀폐기능, 폐기의 용이성이 당연시 되고 있다.

11월_메탈패키징 플라자

최근 서유럽에서는 메탈패키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메탈이 다른 자원에 비해 재활용이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인쇄가 쉽지 않아 인쇄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월에서는 메탈패키징협회와 함께 전 세계의 금속 포장 산업 및 관련 협력 업체들의 새로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 특별 전시회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여러 이슈를 꿰뚫어보는 정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리고 이 특별 전시회 주변은 혁신적인 금속 포장 솔루션을 선보인 업체들로 채워진다.

특별전시회 save food

UN식량농업기구(FAO)의 협력하에 진행되는 특별 전시회는 뒤셀도르프 전시 센터가 주관하며 인터팩에 출품하는 여러 전시사 협회가 지원한다. 현재 생산자가 식량을 생산하면 소비자가 그것을 받기까지 총 35%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전시회에서는 현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포장 산업의 가치 사슬, 식품 수송 및 물류 등의 각 단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이 제시된다. 이러한 솔루션은 포장의 보호 기능이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 중 식품이 상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